

“민주주의 심각한 위협”... 이재명 피습 정치권 일제히 규탄

尹 “결코 용납해서는 안돼”... 병원 이송·치료 지원 지시
김진표 “폭력행위 용납 안된다”... 한동훈 “철저한 수사”
국힘·민주·정의당 엄중 처벌 촉구·패유 기원 메시지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정치권은 우려와 패유를 바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.

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.

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,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.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“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”며 “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”고 밝혔다.

김 의장은 “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”며 이같이 비판했다. 그는 “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”며 “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“이 대표의 패유를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“사회에서 절대로,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”이라고 말했다. 한 위원장은 “수사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,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“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

는 것은 누구나 이권이 있으면 투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”이라며 “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”고 적었다.

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“부디 이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, 이 대표가 어서 쾌유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”고 적었다. 이 전 대표는 “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.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”며 “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“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, 용납될 수도 없는 일”이라며 “강한 유감을 표한다”고 밝혔다.

박 수석대변인은 “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”이라며 “피해가 크지 않길 바란다. 조속한 쾌유를 빈다”고 말했다.

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돼 입원 중인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”이라며 “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”고 말했다.

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“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과 파괴 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”며 “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

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기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며 이동 중 습격당하고 있다. (바른소리 TV 유튜브 캡처)

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”이라고 했다.

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

패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오후 예정된 평산마을 방문을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”고 말하자 “그 뜻은 충

분히 알겠다. 지금은 대표를 모시고 가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. 그 일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”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테러 수난사 재조명

박근혜 ‘커터칼’ 송영길 ‘망치 피습’
전국 단위 선거 유세 중 발생
군부정권엔 정적 죽이기 계획 테러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.

이전에도 여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전국 단위 선거 직전 괴한 피습에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.

이날 20~30cm 길이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한 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, 가장 유사한 케이스는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‘커터칼 피습’ 사건이다.

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5·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지모 씨가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cm 길이의 오른 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.

박 전 대통령은 입원 도중 측근들에게 “대전은 요”라고 물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, 퇴원한 뒤 곧바로 대전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한나라당에 열세이던 판세가 뒤집힌 바 있다.

최근에는 2022년 3·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서울 신촌 지원 유세 중에 유튜버인 표모 씨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일도 있었다.

이 사건도 선거 유세 중 벌어진 당 대표 피습인 데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지역도 같다.

송 전 대표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유세에 나서는 등 ‘봉대 투혼’을 펼쳤지만,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며 선거 파급력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.

흉기나 둔기처럼 생명이 지장을 줄 수 있는 ‘테

러’ 수준의 습격이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나 유력 정치인이 계란이나 물을 맞거나,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.

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‘우리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’에서 연설하던 도중 아우하는 청중 사이에서 날아온 달걀에 아래턱을 맞았다.

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2007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 승려 복장을 한 청년 남성이 “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”고 외치며 던진 계란에 머리 부근을 맞았다.

같은 해 11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갑자기 한 30대 남성이 계란 여러 개를 투척하며 소동이 벌어졌다. 당시 이 후보는 이마와 안경에 계란 파편을 맞았다.

2018년 5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(국민의힘 전신)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에 지지자를 자처하며 다가온 30대 남성 김도씨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했고, 열흘 뒤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도 제2공방 건설 문제 관련 토론회 중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얼굴과 팔 등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.

민중화 이전 군부정권 시절로 올라가면 더 험악한 사건도 있었다. 정적의 목숨을 노린 계획적 테러였다.

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하던 1969년 6월 20일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질산(초산) 테러를 당했다. 괴한들이 뿌린 질산이 자동차 창문에 던져져 차창은 녹아내렸으나, 김 전 대통령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. 김 전 대통령은 동해상으로 끌려가 살해당할 뻔하다 5일 만에 풀려났다. /연합뉴스

尹 “새해 경제 역동성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”

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

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‘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’에 참석해 “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”고 강조했다.

윤 대통령은 오전 여의도 경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행사 격려사에서 “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.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윤 대통령은 “우선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. 콘텐츠, 금융, 바이오헬스,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”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.

이어 “인프라,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

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”며 “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”고 다짐했다.

윤 대통령은 또 “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.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다”고 말해 재차 박수를 받았다.

윤 대통령은 “지난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했다”며 “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 평균 절반으로 잡아냈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”고 부각했다. /오광록 기자 kroh@

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.

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“에덴병원”

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

대표원장 허 정의 임직원일동

진료내용

산부인과, 내과, 외과,
영상의학과, 소아청소년과, 건강검진센터

에덴병원
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(두암동)
대표전화 | (062)260-3000